韓國 인류기원신화의 서사 양상 - 創造와 再創造

-中國 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李 春 姬*

1. 들어가는 말

人類起源 신화는 천지개벽과 더불어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신화소로, 創世 신화소 가운데 핵심적 내용의 하나이다. 인류의 시원, 인류의 기원, 인간창조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는 이 신화소는 천지개벽 신화의 일부를 이루면서 최초의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인류기원 신화 가운데는 천지개벽 신화와 대응되는 형식을 지니지 않는 것도 있다. 이는 세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인류기원신화로서 하늘에서 인류의 降下, 땅으로부터 인류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인류기원 신화는 이미 있었던 세계가 한 차례 파멸되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았던 자들이 再生하여 겨레의 조상이 된다는 홍수신화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것도 세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인류기원 신화의 일종이다. 천지가 창조된 다음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人類의 創造 과정으로 볼 때, 홍수로 인해 인간이 멸종되고 다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人類의 再創造 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유럽이나 중국 신화의 특징이다.[1]

신화는 전승하는 방법이나 또는 전승매체에 따라 文獻신화, 巫俗신화,

---

* 박사과정

1) 한국의 인류기원 신화도 그 계보를 세워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들에서 신화의 이야기가 창조와 재창조라는 형식적인 연관성 외에도 내재적인 연관성이 무엇인지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口傳신화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전승되는 한국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인간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헌신화로 전승되고 있는 <檀君神話>에서 단군을 인류의 始祖로 보고 단군의 출생과정을 인간창조 신화로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하나, 단군은 통치자의 시조이지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류기원 신화로 볼 수 없다. 즉 桓雄이 인세에 뜻이 있어 욕심을 냈다는 데서, 熊女가 인간이 되기를 기원했다는 데서 웅녀 이전에 이미 인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단군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였으니 이미 인류의 집단을 말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인간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무속 신화에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자료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창세가>와 <셍굿>이 있고,[2] 인간의 재창조 신화와 관련한 이야기는 구전설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홍수 유민으로 남은 남매가 결혼하여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인류의 시조>[3]설화를 들 수 있다.[4]

지금까지 인류 창조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별로 찾아볼 수 없으나 創世 신화를 연구하는 자리에서 하나의 요소로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한 것이 있다. 서대석[5]은 창세 시조신화를 연구하는 자리에서 인간 창조의 신화소에 대한 해석을 진화론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은 무(無)에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라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신화와 민담이 보여주는 세계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하늘에서 하강한 인류 시조의 특징을 들어서 천신 숭배의 신앙의식도 첨가되어 있다고 해석해 놓았다. 이 밖에 김헌선[6]이 인간창조의

2) <창세가> : 손진태, 『朝鮮神歌遺篇』, 향토문화사, 1930.
<셍굿> : 임석재 · 장주근, 『관북지방무가(追加)』, 문교부, 1966.

3) 한상수, 『韓國人의 神話』, 文音社, 1980.

4) 남매혼을 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설화는 1923년 손진태 선생에 의해 처음 조사 된 뒤 지금까지 여섯 종의 이본을 확보하고 있다.(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1993, 217면 참조) 이야기 내용이나 서사적 구조에서 볼 때, 여러 이본들이 대체로 비슷하므로 본고는 편의상 1980년에 한상수가 채록하고 구비신화로 분류해 놓은 <인류의 시조>를 이용하기로 한다.

5)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_____, 「한국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101호, 1989, 20~25면.

신화소가 일월에 연결된다는 점,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재해석을 시도한 바는 있지만 새로운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7]

인류 재창조와 관련하여 손진태, 장덕순, 최래옥 등의 설화 전설 관련 저서에서 홍수설화, 홍수신화, 대전쟁 전설로 분류해 고찰하면서 잠깐 언급한 바 있고,[8] 최근에 나온 나경수의 <한국의 인류기원신화 연구>에서 男妹婚 설화를 처음으로 인류 기원 신화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苦心을 한 바 있다.[9] 그는 남매혼 설화의 문학적 양상을 다각도로 고찰하면서, 자료의 성격은 신화소가 전설화한 것이나, 기능상 조상 설화인 남매혼 설화가 인류기원, 씨족기원, 지역시조기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두 신화 기능의 스팩트럼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10] 그밖에 조현설은 남매혼에서 보이는 근친상간 현상에 대해 문제를 던지고 윤리학적으로 고찰 한 바 있다.[11] 즉, 남매혼 신화의 서사 구조에서 결혼하기 위해 하늘의 의도를 묻는 천의 시험이라는 話素에 대하여, 인류의 재창조를 위한 "윤리학적 迂廻路"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논의는 대체로 남매혼 설화가 가지는 신화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을 인류의 창조신화와 연관지어서 고찰한 연구는 지금까지 찾아 볼 수 없다.

신화는 민족에 따라 저마다 다르지만, 신화의 話素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공통성 또는 일반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화의 화소가 그 작품 속에서 고유의 가치를 가진다 해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체 문화적 체계에 따른 의미의 추측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민족의 신화이지만 세계를 인식하는 데서 동일한 사고를 나타낼 수 있

6) 김헌선, 『韓國의 創世神話』, 길벗, 1994.
7) 김헌선은 글에서 <창세가>는 금쟁반 은쟁반을 설정해 놓으면서 근친상간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고는 <창세가>의 "결혼"은 근친상간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김헌선, 전게서, 67면 참조)
8)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7.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서울: 이우출판사, 1978.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81.
9) 나경수, 『韓國의 神話硏究』(제2부), 敎文社, 1993.
10) 나경수, 전게서, 273면.
11)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11집, 2000.

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신화의 비교가 가능하며, 비교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신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가져 올 수 있다.

본고는 상기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兩國의 인류 창조와 관련 신화를 서로 비교 고찰하면서 양국의 인류기원 신화가 갖는 특징 내지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 인류기원 신화에서 창조와 재창조의 내재적 연관성을 도출해 보려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자료와 내용을 개관하고 신화의 화소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인류의 창조

2.1 자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무속신화 <창세가>와 <셍굿>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형편이므로 이 자료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창세가(創世歌)>는 손진태가 함남 함흥에서 1923년 8월에 채록한 김쌍돌이 구연본으로서 <조선신가유편>에 수록되어 있다. 본토에서 전승되는 創世 신화 중에서 가장 먼저 채록되었고 완벽한 내용을 갖고 있다. 내용은 크게 천지개벽, 일월의 조정, 인간창조, 인세차지 경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그 가운데서 인간창조 부분만 인용하여 자료로 삼는다. 내용이 소략하긴 하지만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옛날 옛時節에 ①미럭님이
②한 짝 손에 은(銀)쟁반 들고 한 짝 손에 금(金)쟁반 들고
③하늘에 조사(祖詞)하니
④하늘에서 벌기 떠러져 금(金)쟁반에도 다섯이요 은(銀)쟁반에도 다섯이라
⑤그 벌기 자라와서
⑥금(金)벌기는 사나히 되고 은(銀)벌기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은(銀)벌기 금(金)벌기 자라와서 ⑦부부(夫婦)를 마련하야
⑧세상(世上) 사람이 나였어라.[12]

<창세가>에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미륵이 금쟁반 은쟁반을 들고 하늘에 祝辭를 해서, 하늘로부터 다섯 마리의 금벌레가 금쟁반에, 다섯 마리의 은벌레가 은쟁반에 떨어져 각각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고 했다. 즉, 창세주 미륵이 媒介적인 구실을 해서 하늘로부터 벌레가 내려와 인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인간이 부부가 되어 세상에 인류가 번식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미륵은 인간을 창조하는 데서 창세주로서 능동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간창조에서 미륵보다 더 근원적 기여를 해 준 상위 神格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은벌레 금벌레를 보내준 "하늘"인 것이다. 미륵이란 불교 명칭에 대하여 기왕의 논의는 그것이 불교에서 전래된 것이나 본래 신의 이름은 아니고 별도로 숭앙하던 창세 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3] 결국, 사람은 하늘이 내려 보내준 벌레가 자라서 된 것으로, 인간의 고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 신화가 보여주는 人間觀은 건국신화에서 檀君, 朱蒙 등 國祖의 출생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천신 숭배의 의식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셍굿>은 장주근·임석재가 1965년 9월 함흥에서 이주한 강춘옥 무녀의 구연본을 채록한 것으로 『관북지방무가(추가편)』에 수록되어 있다. <셍굿>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모여 있는 서사무가인데 창세 신화의 내용은 첫 머리에 있다. 그 내용에서 천지개벽, 일월의 조정, 인간창조, 인세차지 경쟁 등 중요 삽화의 항목은 <창세가>와 일치하나 구체적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 사람이라 옛날에 생길 적에 어디서 생겼읍니까
> 천지(天地) 압녹산에 가 황토(黃土)라는 흙을 모다서 남자(男子)를 만들어 노니
> 여자(女子) 어찌 생산될까 여자(女子)를 만들었습니다
> 흘기가 사람이 되는대로서 살 동안에
> 따에서 만가지 물건을 내서 잡숫고 살아 노이러가다가 사후(死後)에 떠나므로
> 그따에 도로 들어가 홀글 보태게 되었읍니다.

12) 손진태, 전게서, 8면.
13) 서대석, 전게논문(1980).

-셍굿[14]

여기서는 사람을 "黃土"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文面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세주가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화소는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人地 숭배의 의식을 말해 주며, 다음 단락에서 보이는 "사람이 땅위에서 나는 물건을 먹고살다가 죽어서 흙에 묻혀 다시 흙으로 된다"는 대목은 인간의 삶에 대한 현실적 사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창세가>에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원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반해, <셍굿>에서는 사람은 땅에서 왔으며 죽어서 땅으로 간다는 원천 의식을 보여 주는 데서 대조적이다. 그런데 이 신화 자료는 한국의 신화소가 아님을 이미 논증한 바 있다.[15] 그러나 三韓가운데 辰韓의 주민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주한 秦의 사람이었다는 기록[16]을 상기할 때, 중국의 신화 이야기가 이미 이곳에서 정착해 전승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본고는 <셍굿>을 <창세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로 삼기로 한다.

중국에서 인류기원 신화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多樣하다고 할 수 있다. 50여 개 민족 거개가 인류 기원신화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의 인류창조 신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천지개벽 신화의 중요한 신화소로 존재하는 것이 있고, 또 그와 다르게 인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이들을 인류의 생성 방식에 따라, 대체로 自然生人·動物變人·諸神造人 등 세 갈래로 분류하는 것이 관례이다. 매 갈래마다 다시 몇 가지로 세분되는데 가령 神이 사람을 만드는 갈래만 보더라도 女媧 같은 창조신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傈僳族)거나, 애벌(蜂仔)을 가져다 사람을 만들(瑤族)거나 대나무로 사람을 만드는(土家族)

14) 임석재·장주근, 전게서, 2면.

15) 이 신화소가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황토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중국의 女媧 신화를 가져다 입증하였다. 그리고 여와의 고사가 巫歌에 빈번히 나타나는 점을 들어 이 신화소가 전승과정에서 이입된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서대석, 전게논문(1989), 13~14면 참조.)

16) 『漢書』 卷 九十五, 朝鮮傳 참조.

등의 신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창세 신화는 문헌 신화로 남아 있는 것이 많아서, 그 역사성은 입증된다고 하나 내용이 빈약하고 零散한 것으로 신화 연구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인류 창조 신화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女媧 神話를 가져다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소략하여 비교가 되겠는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그 민족의 전통의식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삼고자 선택했다. 먼저 後漢 應劭의 「風俗通義」에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옛 말(俗說)에
> ①천지가 처음 열릴 때 사람(人民)이 아직 없었다.
> ②女媧가 황토(黃土)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는데
> 너무 애를 써서 힘이 없었다.
> 그래서 ③새끼줄을 진흙 가운데 넣었다가 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 그러므로 ④부귀하고 어진 자는 황토로 만든 사람이고(黃土人)
> ⑤빈천하고 범용한 자는 새끼줄을 당겨 만든 사람이다(引絙人).
>
> -女媧神話之一-[17]

보다시피, 여와 신화는 천지가 처음 열릴 때, 女神 여와가 황토를 빚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애를 써서 기력이 盡하자 새끼줄을 진흙 속에 넣어 들어 올리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와가 손으로 정히 만든 사람은 귀한 자로 황토인(黃土人)이고, 새끼줄을 끌어 당겨 만든 사람은 비천한 자(引絙人)라고 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 신화를 분석함에 ①-②-③의 화소는 본래의 면모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지만, ④-⑤의 화소는 후대에 첨가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화소 ④-⑤에서 사람의 貴賤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신화가 계급사회에 들어서면서, 통치집단이 자기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헌 기재로 보전되어 있는 신화일수록 왕권이나 통치자들에게 의해 變異된 모습을 보이는 것

17) 『太平御覽』 卷七八引, (袁珂, 『古神話選釋』, 人民文學出版社, 1979, p.20)
"俗說天地初開闢, 未有人民 女媧搏黃土爲人 極務力不暇供 乃引繩於泥中 擧以爲人. 故富貴賢知者 黃土人; 貧賤凡庸者 引絙人也."

은 대체로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신화에서 先民의 인간관 내지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를 주로 ①-②-③의 화소에 근거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18] 이 밖에 한족의 설화 가운데서 여와가 사람을 만들 때, 황토를 이용해 사람의 모양을 빚은 다음 산비탈에 두고 말리는데 큰비가 내려, 급히 걷어 모으다가 팔 다리가 떨어지게 된 황토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후에 장애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인류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구체적 화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2 화소의 비교

◗ 창세 신화에서 천지를 개벽한 神은 언제나 가장 상위의 신으로 추앙된다. 창세기의 미륵은 <창세가>의 천지 개벽 신화소에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도록 한 창조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출현에 끼친 공헌이라면 하늘에 기원하고 금, 은 쟁반을 이용해 벌레를 받는 역할을 한 것으로 創世 신의 신격을 흐리고 있다. 그런데 女媧는 두 손으로 흙을 주물러 사람을 만든다. 창조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창조 행위로 신격을 과시했다. 하지만 여와는 천지 개벽의 창조자는 아니었다. 創世신 盤古에 의해 하늘땅이 열리게 되었으니, 여와는 반고보다 서열로 배치하면 뒤에 간다. 한편, 여와는 여신인 데 반해 미륵은 성별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남성적 신으로 볼 수 있다. 여타 민족의 신화에서 인류를 창조한 신들은 남성 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프로메테우스, 히브리아 신화에서의 여호와 등도 모두 남성 신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미륵을 유일신으로 하는 <창세기>와 함께 부계사회에 들어 생성된 흔적으로 보인다. 여성 신으로서 여와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활동은 원시 모권사회의 흔적으로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미륵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축사할 때 사용한 금쟁반

18) 이 밖에 여와가 사람을 만들 때, 여타 신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淮南子』나 『呂氏春秋』 등에서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부위 별로 각각 어떻게 생산했는가 하는 이야기이므로 여기서는 여와가 단독으로 사람을 만든 이야기만 이용한다.

과 은쟁반이다. 신화는 언제나 그 상징성으로 생명력을 얻는 것이다. 금쟁반은 둥근 모양의 그릇이고 → 거기에 금벌레가 떨어지고 → 금벌레는 남자 즉 陽性이 된다는 데서 금쟁반은 해(日)로 상징된다. 따라서 금벌레는 해의 정기로 볼 수 있다. 은쟁반에 은벌레가 떨어지고 → 은벌레는 여자 즉, 陰性이 된다는 데서 은쟁반은 달(月)로 상징된다. 그리고 은벌레는 달의 정기라도 볼 수 있다. 이는 일월생성 신화와 관련지어 해석한 것으로 아주 설득력 있다. 그렇다면, 미륵이 축사하고 쟁반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창세가>는 제의성을 띠고 있는 무속신화이기 때문에 미륵은 여기서 무속적 제의에서의 제사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로써 <창세가>에서의 미륵은 천지개벽의 신화소에서는 유일신 창조신이 되었다가 인류를 창조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가 못함을 살펴볼 수 있다. 창조신이 여기서는 "제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신으로서의 신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일찍 만들어진 한국의 인류기원 신화가 그 뒤에 유전되면서 나타난 어떤 변이로 볼 수 있다. 정확한 것은 詳考해 봐야 하지만, 대체로 인간의 탄생과 관련한 신화가 있을 법한데, 거기에다 미륵이라는 이름과 역할이 습합되어 만들어진 듯하다. 여와의 경우처럼 신이 능동적으로 사람을 창조한다면, 말을 바꿔서 미륵이 창조신이 되어서 인간을 스스로 창조했다면, 하늘에서 "벌레를 보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해와 달의 정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었으므로 인간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는 天降 意識이 신화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 같은 창조신이 필요 없으며, 하늘에서 축사하는 제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륵이 있으면 그만인 것이다. 이 점은 다음의 인간 창조의 재료를 설명하는 데서 확실해질 것이다.

❷ <창세가>에서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진 금벌레, 은벌레가 자라서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여와 신화에서는 황토를 재료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주원료가 황토이다. 벌레는 생명력이 있고 황토는 생명력이 없지만 모두 인간으로 되었다. 벌레는 떨어질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왔으므로 스스로 자라서 사람이 된 것이고, 황토 또는 진흙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공기와 물이 있는 자연 공간 그 속의 한

분자로 된 것이 사람이다. 자라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고 하지만 一朝一夕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인간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뜻으로 <창세가>가 보여주는 진화론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19] 그런데 벌레는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생명체가 점차 자라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역시 우리의 왕족 신화에서 볼 수 있는, 하늘에서의 존재가 지상에 내려와 고귀한 존재로 된다는 의식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황토가 아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또한 원시 선민들이 자연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地神 숭배 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萬神之主인 제우스가 홍수로 인간을 毁滅시켜려 할 때, 그의 아들 데칼리온과 며느리 퓌이라가 "너의 어머니 시체의 뼈를 던져야 하니라"고 하는 신의 가르침을 듣고 "대지는 萬物之母로서 돌은 바로 어머니의 뼈이므로" 걸어가면서 돌을 뿌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와가 황토로 인간을 만든 것은 데칼리온과 퓌이라가 돌을 던져 인간이 된 것과 동일한 의식적 특성을 띠는 것으로, 태초에 선민들은 인류와 인류의 생존환경에 대하여 인간의 근본은 땅에 있다는 동일한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屈原(BC340-277)은『楚辭』「天問」에서 "여와도 신체가 있거늘 누가 그를 만들었는가(女媧有體, 孰制匠之)"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의 해답을 후에 나온『抱朴子』「釋滯」에서 "여와는 땅에서 나온 것이요, 두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네(女媧地出, 杜宇天墜)"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여와는 땅에서 생겨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媧"자에 대한『辭源』의 해석을 보면, "와는 고대의 신성녀로서 만물로 변한 자이다(媧, 古之神聖女, 化萬物者也)"라고 한 것과 연관시켜 고려할 때, 여와는 땅에서 나와 다시 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으며 역시 고대 선민들이 大地에 자신들의 근본을 두는 의식의 산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지를 인간의 근본으로 보는 의식은 <셍굿>에서 보다 진보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황토로 만들어진 인간은 땅에서 "만가지 물건을 내서 잡숫고 살아 노이러가다가 사후(死後)에 떠나므로 그 따에 도로 들어가 흘글 보태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즉 사

19) 서대석, 전게 논문(1989).

람은 대지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 사는 동안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죽어 다시 땅으로 환원되어 흙을 보탠다는 것이다.

이상 인간의 창조 신화에 대한 논의를 잠깐 정리해 보면, 인류의 근원을 하늘에 두고 있으며, '자라서' 인간이 된다는 진화론적 사고의 표출은 한국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인류의 근원을 땅에 두고 있으며, 인간은 대자연의 한 분자로 그의 어머니는 대지라는 사고의 표출은 중국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씨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여와 신화>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선 무가로서 전승되는 신화와 문헌으로 전해지는 신화가 서로 다른 고유의 의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데서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론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은 논증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한 차이라고 보겠다.

다음은 창조 신화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의식들이 인간의 재창조 과정에서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가 표출하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人類의 再創造와 남매혼

인류의 재창조 신화는 대체로 홍수 신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일명 전쟁신화라고도 하는 홍수 신화는 범세계적인 것이지만 그 내용과 서사구조에 있어서 대체로 비슷한 점이 많다. 『성경』 창세기에서의 "노아방주(挪亞方舟)" 이야기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이는 홍수 신화를 읽어보면, 서사 구조가 인류의 죄악에 의한 홍수 → 선량한 유민 → 인류의 재창조 등으로 우리의 남매혼 신화와 서사 구조는 일치하다. 하지만 홍수 유민이 남매로 설정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히브리의 경우 여호와가 선량하고 용감한 노아 노인의 일가족을 살려 주고, 그리이스인의 경우 제우스는 착하고 신들을 잘 모시는 뒤칼리온과 퓌이라 부부를 살려 주고, 로마인의 홍수 신화인 <變形記> 경우는 天帝의 이름이 제우스가 아니고 쥬피트로 되어 있

는 것밖에 나머지는 그리스 신화와 일치한다. 한국과 중국의 홍수 신화에서 공통되게 형제혼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이들 홍수 신화와 선명하게 다른 특징이다. 홍수 유민 형제혼 모티브로 하여 자료의 친연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또한 비교의 좋은 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3.1 자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류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口傳神話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인류의 시조> 설화가 그것이다. 이 설화는 한상수 선생이 전북 완주의 유명열(남, 50)에 의해 구전되는 것을 1953년 11월에 채록 정리한 것이다. 남매혼 설화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 설화를 신화적 반열에 올려놓는 작업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입장을 살려 남매혼 신화로 취급한다. 그 내용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옛날, 산 속에 농부가 아들 딸 열 둘을 데리고 살았다.
② 가난하여 애들은 먹을 것 때문에 싸운다. 화목하게 지내라고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 어느 집이나 꼭 같았다.
③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셋째 딸과 열곱 째 아들인데 이들은 높은 산에 머루 따러 갔다.
④ (홍수가 일어났다)비가 한 달 열흘간이나 내려 세상은 물바다가 되다.
⑤ 남매만 살아 남고 다른 사람은 모두 죽었다.
⑦ 결혼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늘의 뜻을 묻고자 했다.
⑧-ⓐ 앞산 뒷산에 각각 올라 연기를 피웠다. 연기는 하나로 되었다.
⑧-ⓑ 암수 맷돌을 굴려 산아래서 하나로 합쳐졌다.
⑧-ⓒ 맑은 물을 퍼 놓고 손가락의 피를 섞어 보니 그것도 서로 엉키어 한 덩어리가 되다.
⑨ 남매는 결혼하였다.
⑩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⑪ 그때부터 결혼 시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를 더 먹어야 하는 법이 생겼다.

-인류의 시조[20]

20) 한상수, 전게서, 200~202면.

옛날에 비가 한 달 열흘간 내려 홍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물에 잠기어 모두 죽었는데, 말 잘 듣고 마음이 착한 남매만 남게 되었다. 어디를 가나 사람이 없고 둘만 남을 것을 확인한 형제는 사람의 씨를 잇기 위해 결혼하려 한다. 동생이 결혼을 청하자 누나는 하늘의 뜻(天意)을 묻자고 제의한다. 남매는 결혼하기 위해 하늘의 뜻을 묻는 방식이 상기의 話素 ⑧-ⓐ, ⑧-ⓑ, ⑧-ⓒ이다. 즉, 연기를 피워서 묻고, 맷돌을 굴려서 묻고, 피를 섞어서 묻는다. 세 가지로 묻는 질문에 하느님은 모두 원만하게 대답해 주었으며, 결국 그들은 하늘의 의지를 받들어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되었으며,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를 더 먹어야 하는 풍속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상기의 ④번 홍수 원인을 말해 주는 화소는 남매혼 설화의 여타 이본에서 좀 차이를 보인다. 人戰亂이 일어났다거나, 해일이 일어났다거나, 임진왜란이 있어났다고 하는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이 모두 죽게 한다"는 결과를 위한 설정이라는 공통 분모가 되므로 홍수가 그것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⑧의 화소와 ⑪의 화소에서도 내용의 차이가 보이나, 남매혼 신화의 전체 서사구조에 영향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인류의 재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복희 여와 신화 계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희와 여와는 원래 형제였다는 기록도 있고 부부였다는 기록도 있다.[21] 그들 형제가 혼인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는 唐末 李冗의 <獨異志>에서 처음 보인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로 잠정한다.

①옛날 우주가 처음으로 열릴 때, 여와 형제 둘만 崑崙山에서 살았다. ②天下에는 사람(人民)이 없었다. ③부부가 되려고 의논하려고 해도 또 스스로 부끄러워(羞恥)하였다. ④형은 동생과 함께 곤륜산에 올라 呪文하여 이르기를 "만약

21) 여와가 복희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路史, 後紀2』에서 『風俗通義』의 주석을 인용에 있는 "女媧, 伏羲之妹"라는 구절에서 형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고, 唐 노동(盧仝)의 <與馬異結交詩>에 "女媧本是伏羲婦"라는 구절이 있어 그들이 부부간으로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발굴된 前漢시기의 石刻畵나 磚畵에서 人首蛇身으로 몸을 서로 휘감고 있는 복희 여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서 부부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하늘께서 우리 둘을 부부가 되게 하시려면 연기(煙)를 모두 합쳐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연기를 흩어 주십사"고 했다 ⑤ 연기는 즉시 합해졌다. ⑥그 동생은 곧 형에게 허락하였다. ⑦이내 풀을 엮어 부채를 만들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⑧지금도 결혼할 때 신부가 부채를 쥐고 있는데, 이는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필자 역)

-獨異志[22]

이것은 晩唐 시기에 민간에서 전하는 전설을 기록한 것이다. 이 신화는 여와가 인간을 만들었던 곳으로 간주되는 황하 중류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女媧廟와 서로 引證하면서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북방지역의 신화로 추정할 수 있다. 천지 개벽 당시에 곤륜산에 살던 여와 복희 형제가 천하에 사람이 없으므로 부부가 되려 했다. 그러나 둘 다 수치로 생각해서 곤륜산에 가 "연기를 합치고 흩어지는 것"으로 결혼 여부를 허락해 달라는 呪文을 해 본다. 연기는 합쳐지고 그들 형제는 결혼한다. 여와가 결혼할 때, 부채를 만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그 관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결혼 할 때 여자는 꼭 부채를 쥔다고 했다.

이 기록은 전체 내용이 간략하고 서사구조를 이루는 화소 가운데 홍수 災難의 화소가 빠져 있어 앞 뒤 문맥이 논리적 당착을 보인다. 여와나 복희는 본래 홍수의 유민으로 그들이 형제혼을 하게 된 것은 인류의 재창조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서는 "우주가 처음 열릴 때"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 그들 형제의 관계가 어디서 온 것인지, 인류가 아직 생기기 전에 근친상간의 의식이 먼저 있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천하에 사람이 없어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수치"라고 한 것은 말 자체가 모순된다. 다시 말해, 홍수와 같은 멸종의 재난이 있어 사람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23]이와 같은 결

22) "昔宇宙初開之時 有女媧兄妹二人 在崑崙山下 而天下未有人民. 議以爲夫妻 又自羞恥. 兄卽與妹上崑崙山 咒曰: "天若遺我二人爲夫妻 而煙悉合; 若不 使煙卽合. 其妹卽來就兄. 乃結草爲扇, 以障其面. 今時娶婦執扇 象其事也." (袁珂, 『中國神話通論』, 巴蜀書社, 1989, 83면 재인용)

23) 중국의 신화학자 원가(袁珂)는 이 기록의 내용을 "신부가 손에 부채를 쥐고 있는" 풍속의 유래를 해석하기 위해 신화 구조에 첨삭을 거쳐 歪曲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袁珂, 전게서, p.84)

격 사유는 苗族, 瑤族 등 민족이 전하고 있는 복희 여와 신화에서 보충되고 있으며, 비교적 원만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로 잠정한다.

① 伏羲女媧 형제의 부친이 그의 형인 雷公과 재산을 다투다가 원한을 맺다.
② 부친이 뢰공을 붙잡아 철창 속에 가두어 놓고 형제더러 지키라고 하다.
③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하는 뢰공에게 형제는 불쌍히 여겨 물 한모금 주었다.
④ 뢰공은 철창을 부수고 날아가면서 이빨을 빼서 형제에게 주면서 땅에 심으라고 하다.
⑤ 복희 형제는 뢰공이 남겨준 이빨을 땅에 심자 순식간에 커다란 조롱박(葫蘆)이 되었다.
⑥ 뢰공은 복수를 하기 위해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잠기게 했다.
⑦ 홍수로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복희 여와 형제만 조롱박 속에서 살아 남게 되었다.
⑧ 형제는 늘 天梯로 天庭에 올라가 놀았다. 하늘과 땅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
⑨ 어른이 되자 형은 동생에게 결혼하자고 했다.
⑩ 동생은 처음엔 거절하다가 나무를 돌면서 따라잡기를 해서 결정하자고 했다.
⑪ 형이 따라가다가 반대방향으로 돌자 동생은 형의 품안에 들게 되었다.
⑫ 결혼해서 얼마 안 되어 살덩이(肉球)를 낳았다.
⑬ 부부는 괴상히 여겨 그것을 난도질해서 종이에 싸고 天庭으로 놀러 가다.
⑭ 半空에 이르러 바람이 불어와 난도질한 핏덩이가 땅에 떨어져 사람이 되었다.
⑮ 나무에 떨어진 자는 木씨성을 가지고 나뭇잎에 떨어진 자는 葉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모두 그것을 성씨로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세상에는 또 인류가 있게 되었다. (필자 편역)

-伏羲女媧故事[24]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복희 여와의 아버지와 뢰공 형제간의 재산 갈등으로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잠기게 된다.(①,⑥) 형제는 뢰공이 준 이빨을 심어서 큰 조롱박을 얻어 재난을 피하고 남는다.(⑤,⑦) 어른이 되자 형은 동생에게 결혼하자고 하고 동생은 거절한다.(⑨) 동생은 나무를 돌면서 따라잡기 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를 제안하자 형은 꾀를 써서 동생을 품안에 들

24) 원가, 전게서, p.87.

게 하고는 결혼한다.(⑩,⑪) 결혼해서 핏덩이(肉球)를 낳게 되자, 부부는 그것을 난도질하여 종이에 싸서 하늘로 가는 도중, 바람이 불어 살 가루(肉屑)는 흩날리게 되고 다시 그것이 지상에 떨어져 사람이 된다.(⑫,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자기가 떨어졌던 곳으로 성씨를 정하고 복희 여와는 재창조된 인류의 시조가 된다.(⑮)

상기 내용 가운데서 여타 이본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④ 번에서 뢰공이 형제에게 준 것이 이빨이 아니라 種子를 주는 것이며, ⑩ 번의 따라잡기가 거북, 대나무에게 묻거나, 맷돌을 굴리는 것이다. 그밖에는 대체로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⑫ 번에서 결혼해서 낳은 것이 살덩이 혹은 핏덩이, 계란 같은 것, 박씨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와는 인류의 창조신이면서 또 다시 만들어진 인류의 시조가 되고 있다. 이것은 여와 신화가 후대에 오면서 여타 종족의 신화와 서로 수용변이를 거치게 되면서 이루어진 모습니다. 여와 신화의 변천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복희 신화와의 융합이다.[25] 물론 현존하는 문헌에서 여와 신화의 기원이나 다른 종족의 신화와의 수용 과정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와가 하늘을 補修하는 "女媧補天" 신화[26]에서 홍수를 물리쳤으므로 그 모티브가 요족 등 민족의 신화에 와서 중요한 내용으로 변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상기 두 자료(ⓐ,ⓑ)의 내용을 모두 수용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한국과 중국의 자료들을 다시 다섯 개의 화소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 도표와 같다. 한국의 신화를 (가)로, 중국의 신화를 (나)로 잠정한다.

---

25) 복희 여와 신화에 대하여, 그들이 원래 묘족의 祖先으로 奉祀했다는 기록이 『山海經』「海內篇」에 있어 일부 연구자들은 복희 여와는 원래 묘 민족의 조상으로 복희여와 신화는 苗族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한다. 기록은 이렇다. "有人曰苗民. 有神焉, 人面蛇身, 長如猿, 左右有首, 衣紫衣, 冠旃冠, 名曰延維. 人主得而饗食之, 伯天下." (聞一多, 『聞一多全集』 3, 「伏羲考」, 湖北人民出版社 참조)

26) "女媧鍊五色石以補蒼天, 斷鼇足以立四極, 殺黑龍以濟冀州, 積蘆灰以止陰水."(『淮南子』「覽冥篇」 二, 袁珂, 『中國古神話選釋』, 人民文學出版社, 1979, p.23)

화 소	(가) <인류의 시조>	(나) <복희 여와 고사>
① 홍수의 원인	- 가난과 불화(산골 마을)	- 재산 갈등(곤륜산 ...)
② 생존의 장소	- 산꼭대기(하늘과 닿음)	- 조롱박 안 (땅과 닿음)
③ 혼인 이유	- 사람이 다 죽어서 씨를 잇기 위해	- 어른이 되어서
④ 천의시험과 방법	- ㉠연기를 피우다(天意) ㉡맷돌을 합치다 ㉢피를 섞다	- 따라잡기 하다(白意) - (㉠연기를 합치다 ㉡맷돌을 굴리다(天意)
⑤ 결혼의 결과	- 결혼 → 자손을 두다 정상적인 사람	- 결혼→ 핏덩이 →사람 비정상의 사람
⑤ 결과 및 증시	- 인류의 시조 ; - 풍속의 유래	- 인류의 시조 ; - 풍속 혹 성씨의 유래

3.2 화소의 비교와 특징

위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인류의 재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소는 남매가 혼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창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홍수이다. (가)에서는 가난과 불화가 홍수의 근원적인 계기가 되었고, (나)에서는 뢰공 형제가 재산을 다투는 갈등이 홍수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점을 미루어,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홍수와 같은 재난에 의해 세상이 물 속에 잠기어 사라지지만, (가)에서 말 잘 듣고 마음 착한 형제는 산꼭대기에 올라 생존하게 되고 (나)에서는 형제가 뢰공의 이빨을 심어서 얻은 조롱박 안에 들어가 생존하게 된다. 홍수 유민 남매가 혼인을 고려하게 된 것은 일단 사람이 다 죽어 없으므로 또 인간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혼인을 이루기 위해 天意를 알아보는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신화 (가)에서 "연기를 피우다" "맷돌을 굴리다" "피를 섞다" 등 세 가지 儀式을 거치는 것으로 천의를 물어 보고 그 뜻에 따라 결혼하게 되는데, (나)에서는 "연기를 합치"는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무를 에돌며 따라잡기 하는 白意적인 특징이 보다 주목된다. 이는 혼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가)에서는 "사람의 씨를 잇기 위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지만 (나)에서는 그러한 목적의식도 보이지만 그보다 본능적인 "성적 충동"이 혼인의 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하나는 흥미로운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에서는 결혼해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子孫을 두었지만, (나)에서는 사람이 아닌 핏덩이(肉球)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의 복희 여와 부부는 그것을 칼로 난도질해 살 가루(肉屑)를 만들었고, 다시 그것이 공중에서 바람에 흩날려 땅에 떨어지면서 비로소 사람으로 변한다. (나)의 이 화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가)와 (나)는 모두 남매가 혼인을 하여 인간을 만들었지만, (가)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었고 (나)에서는 비정상적인 핏덩이를 낳아 그것이 또 한 과정을 거쳐서야 사람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畸形兒', '怪胎'로 보면서 역사적으로 血族婚시기에서 族外婚시기로 過渡시기의 산물로 남매혼에 대한 저주와 징벌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을 근친상간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앞세우고 있다. 신화는 일단 신화로 읽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형제혼을 근친상간이 아니라 일종의 性을 전제로 하는 신화적 不合理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류의 창조에서 벌레가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나 여와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든다는 자체가 불합리성을 띠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복희 여와 부부가 정상적인 사람을 낳지 않고 핏덩이를 낳은 것을 일종의 신화적 불합리성으로, 신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핏덩이를 가루 낸 육설이 땅에 떨어져 하나 하나가 모두 사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해석하기 어렵다. 이는 모름지기 땅에서 사람이 생긴다는 의식이 인식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와 (나)의 남매혼의 성격이 서로 차이를 보이며, 나아가 남매의 성격도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진다. 이제 몇 가지 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문제와 함께 각자의 특징을 계속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❶ 먼저 홍수의 원인으로 볼 때, (가)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난과 불화가 근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래옥 교수는 한국 홍수 설화를 면밀히 고찰하면서 홍수의 원인으로서 인간의 墮落이나 신의 震怒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7] 아마도 우리의 남매혼

설화 대부분이 홍수가 발생하거나 전란이 일어나는 대목으로 시작되는 연고로 그러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가 선택한 자료에서 볼 때, 전혀 그렇지도 않다. 원문을 요약 제시하면, 산 속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아들 딸 열두 명이나 있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싸우고 아우성이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형제 간 화목하게 지낼 줄도 몰랐다." "그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데, 아들딸을 많이 두어서 어느 집이나 똑 같았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나타난 가난, 불화, 불효의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신화 (가)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난과 타락으로 인한 불화가 죄악을 낳는 것이며, 그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일어난 것이다. 한편, (나)에서는 복희 여와의 아버지와 뢰공 兄弟 사이에 재산을 다투다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동생이 형을 붙잡아 철창에 가두니 형제간의 불화가 深化되었으며, 그것이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서고 있다. 재산 다툼, 형제간의 불화 등은 인간의 타락상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볼 때,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가)와 (나)에서 한 가지로 보여진다. 또한 이는 홍수 신화가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므로 홍수 화소가 상징하는 신화적 원리 즉, 죽음과 再生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종교론적 인간을 更生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28] 그런데 문제는 (나)에서의 홍수는 뢰공이 직접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복희 여와의 부친과 뢰공은 형제간이므로 따지고 보면 그들 형제 역시 뢰공 神의 後裔임을 알 수 있다.[29]이는 또 복희 여와 형제가 곤륜산(자료ⓐ)에 살고 있는 것과 늘 天梯로 天庭에 올라가 놀았다는(자료ⓑ-⑧⑬)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 점은 (가)에 등장하는 형제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며 또한 복희 여와 형제의 향후 일련의 행위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가)에서의 남매는 홍수가 발생할 무렵 산꼭대기에 있었으므로 살아남았고 (나)의 형제는 뢰공의 이빨을 심어서 얻어진 조롱박 속에서 생존하

27) 최래옥, 전게서, 63~74면 참조.
28) 나경수, 전게서, 228면.
29) 중국 "洪水再造人"신화의 대부분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판단이 사실과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듯하다.

였다. 한국의 전통에서 산꼭대기 '山頂'이라고 하는 것은 檀君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단군 王劍의 天父 桓雄이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神檀樹에 내려 인간 세상을 맡아 다스렸고 거기서 단군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비록 문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마음 착하고 효도 잘하는 형제가 산꼭대기에 올라 天神의 保護를 받아 살아 남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적인 사고의 특징을 약간이나마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조롱박 안에 있었으므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중국적인 사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先民들은 조롱박(葫蘆)이 인류의 최초 식품이었으며, 그 배가 잉태한 母體처럼 생겼으므로 씨가 많고 왕성한 생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30] 그래서 조롱박은 복희 여와 형제가 홍수의 재난을 피하는 求生 도구가 되었을 뿐더러 인류를 재창조하고 생육한 모체로 여기기도 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조롱박은 한족이나 여타 민족들에게서 아주 신성시되고 숭배하는 물건이다. 풍속 가운데 漢族은 어머니를 칭할 때 '尊堂'이라고 하는데 그 尊자가 바로 조롱박을 의미하며, 결혼할 때 '合歡酒'를 조롱박을 갈라서 만든 술잔으로 마시는데 그것은 조롱박에서 왔다는 것을 상징한다. 여기서 생명과 가장 가까운 원천으로서의 생명을 낳는 여성의 상을 연상하면서 인류의 근원을 땅에 있는 地神에서 찾으려는 (나)의 의식적 특징을 얼마간 살펴볼 수 있다.

여기까지 홍수의 원인을 살피면서 (가)와 (나)의 공통된 모습을 보았고, 또 (가)의 천신을 숭배하는, (나)에서 지신을 숭배하고 있는 의식적 특징을 얼마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나)에서의 형제가 (가)의 형제와는 달리 神의 직접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❸남매혼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는 근친상간 문제이다. 이는 天倫을 어기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매혼이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잉카제국이나 고대 이집트, 하와이 왕족들은 남매간의 결혼이 터부시되지 않았다고 한다.[31] 중

30) 聞一多, 『聞一多全集』 1, 「伏羲考」, 三聯書店, p.59.
31) 한상복 외 2인, 『문화인류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3, 116면.

국의 경우도 지금까지도 외사촌 남매가 결혼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이것 역시 남매혼이 용납되고 있었음을 말하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현상이 있으므로 근친상간의 신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부정과 징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근친상간의 문제를 해석하는 돌파구는 천의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에서의 천의는 남매의 신비체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남매에서 남녀로 인격전환이 이루어지며 그들의 결합은 세간의 윤리를 초월한 神聖婚으로 변모된다.[32] 여기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천의 시험이라 하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신성성의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신성성을 賦與받은 남매는 하늘의 뜻에 따라 근친상간이 아닌 신성한 혼인을 이루고 자손을 두게 된다.

(나)의 경우 연기로 천의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이 自意적인 따라잡기를 하는 것으로 혼인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료 ⓐ에서 보이는 연기를 합하는 의식은 곤륜산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곤륜산은 그리스 신화에서의 신들이 활동하는 올림푸스산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신과 친척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와 형제의 천의 시험은 일가족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許婚을 비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가)의 경우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은 자료 ⓑ에서 "따라잡기"하는 것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자 하며, 천의를 묻지 않고 자의로 결정하고 또 '반대방향으로 돌아' 금방 동생을 품안에 들게 하는 데서, 신성성을 획득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따라잡기가 신성성 획득을 위한 것이었다면, 거기에 속임수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중국의 문학작품에서는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일 때 따라잡기라는 대목을 설정하는 것이 일쑤인데 여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총괄적으로, (가)에서는 홍수 유민 남매가 하늘의 선택에 의해 신성한 존재로 되며, 따라서 신성한 혼인을 하고 인류의 시조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이 세상에 홍수를 내려 모든 기존의 질서를 물 속에 사라지게 하고 또 하늘이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준다는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천신 숭배 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은 미륵이

32) 나경수, 전게서, 234면.

인류 창조의 유일신으로 설정하지 않고 하늘에서 벌레를 내려보내서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과도 상통하는 점으로 인류 창조 신화의 의식적인 면에서의 연속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나)에서 천상을 자유로이 오르내리는 형제는 하늘에 의한 선택과 신성성을 부여받는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혼인을 이루며,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인간을 만들며,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질서를 다시 만드는 신적인 즉, 주체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주체신이 생산해낸 사람은 바로 땅에 혹은 山川草木에 떨어져서야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데서, 사람은 대지의 품에서 생긴다는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여와 신이 神的인 불합리한 방법으로 인류를 창조하는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근원을 천상에 두지 않고 대지에 두는 근원 의식의 연속으로 이해된다고 본다. 이 점은 조롱박에 의해 복희 여와 형제가 구출되는 화소가 가지는 의미에서 傍證되기도 한다.

4. 맺음말

東·西洋을 막론하고 인류 기원신화는 일단 형식상에서 인류가 창조되었다가 다시 홍수에 의해 소멸되고 다시 창조되는, 창조와 재창조의 서사적 과정을 겪는다. 이는 創世 신화 가운데 중요한 신화소로서의 인류기원 신화만 가지고 있는 서사적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적 양상과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 보기 위해, 본고는 한국의 인류 기원신화와 필자가 體得하고 있는 중국 인류 기원신화를 비교 고찰하였다. 아직 더 많은 부분에서 논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진행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적 특징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첫째, 인류의 창조신화에서 한국의 경우 창조와 재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는 무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사고의 특징은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天神 崇拜의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남매가 天意를 시험

하고 하늘이 부여한 神聖한 결합으로 다시 사람을 만드는 데서 확인된다. 결국 하늘을 숭배하고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는 천신 숭배의 의식이 전후로 관통되어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는 주체적 신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제사자'의 역할을 하는 미륵으로 설정되어 있어, 무가적 색채를 다분히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하늘에 대한 숭배와 그에 따르는 敬畏의 소산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창조와 재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의 사고적인 특징은 일부 유럽의 인류신화에서 보여주는 大地, 즉 땅에 대한 숭배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류가 다시 창조되더라도 땅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을 만드는 신인 여와도 땅에서 나와 다시 대지로 化한다는 데서 일종의 地神 숭배의 사고적 특징이 보인다. 중국 신화에서 보면 인류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인류를 만드는 神이 설정되어 있어 이들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인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신적인 恣意性을 보이고 있는 듯한 것이 특징이며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다.

둘째, 한국의 인류 기원과 관련한 신화는 창조와 재창조의 서사적 특징뿐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근간의 사고적 특징이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류 기원 신화도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형식과 내용에서 연속성을 지니는 계보를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김규태, 『한국신화와 원초의식』, 반도문화사, 1980.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1993.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선정규, 『중국신화 연구』, 고려원, 1996
이복규, 『부여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장주근,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0.
陶陽·鍾秀, 『中國創世神話』, 上海人民出版社, 1989.
聞一多, 신화편, 『聞一多全集』 3, 湖北人民出版社.
吳曉東, 『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 중앙민족대학출판사, 1999.
于長敏, 『中日民間故事比較硏究』, 吉林大學出版社, 1993.
袁珂, 『中國神話通論』, 巴蜀書社, 1991
____, 『古神話選釋』, 人民文學出版社, 1979.
玄珠, 『中國神話硏究ABC』, 世界書局, 民國 18年.